

제 151 호

전 교 주 일  
연 중 제 29 주 일

1975. 10. 19

#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 우리가 바로 그들의 희망

유 장 훈 신부

삶에 지쳐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없는 인생의 실의와 고뇌 속에서 몸부림치며 슬퍼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는 삶에 의욕도, 행복도 모두 다 포기해버린 채, 어찌할 수 없이 하루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들은 다름아닌 온갖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가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의 행복의 꿈을 가지고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헐사이 없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이 허황된 것이기에 마치 파랑새를 쫓고 있는 사람처럼 불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반면, 확실한 희망을 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인생의 수많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더욱이 이 희망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피안의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스며들어 울어 트고, 성장하고 있는 다름아닌 그리스도의 풍요한 생명에의 참여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신자인 우리들이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온 세상, 특히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희망을 전달하는 임무입니다. 이 희망은 그들의 현재 생명에 원동력이 되고, 그들의 삶을 값있게 하며 또 우리와 같은 "새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의 희망이고,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희망은 지식으로써가 아니라 느낌으로써 얻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로써가 아니고,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직접 피부로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의로운 생활을 보여주고, 사랑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도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우리의 참되고 기쁨에 넘친 생활을 통해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연한 예언의 직무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괴로워하더라도 우리들의 생활속에서 희망이 발견된다면 그들의 희망에도 등불이 켜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도, 교회에서도 희망의 빛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절망으로 기울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심 여 중 · 고 종교감>

### ✧ 이 주일의 미사 ✧

#### (1) 개회식

□입당송 응답이 제시되기, 주여 당신을 부르오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와 이 말씀을 들어 주소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당신 날개 그늘 아래 이 몸을 숨겨주소서

#### (2) 말씀의 전례

- 제 1 독서 (이사야 45 : 1. 4-6 경향 잡지 P86)  
키루스의 오른손을 잡아준 것은 그의 앞에서 이교 백성들을 정복하기 위함이다.
- 찬가송 ◎영광과 힘을 주께 돌려드려라.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드려라/온 누리여 야훼께 노래 불러라/당신의 영광을 백성에게/그 기적을 만 백성에게 두루 알리라. ◎
- 제 2 독서 (테살로니가 전서 1 : 1-5 성서 P 464)  
너희 신앙과 사랑과 희망을 기억하라.
- 알렐루야 알렐루야. 별들처럼 세상을 비추며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켜라.
- 복음 (마태오 22 : 15-21 성서 P 53)  
카이살의 것은 카이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 □신자들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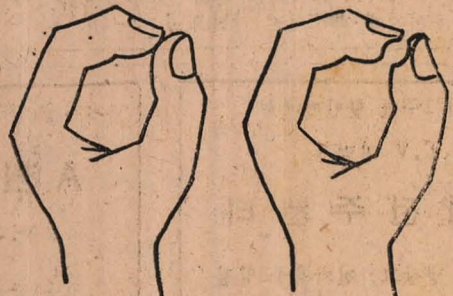
1. 주여, 당신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요하지만 가난한 자 되셨고, 봉사함을 받으시려 않으시고 오직 봉사하셨나이다. 오늘 우리 교회로 하여금 당신의 모범을 성실히 따름으로써 세상 도처에 당신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2. 길이며 진리시오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안에서만 구원과 행복과 넘치는 기쁨이 있음을 더욱 깊게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일치함으로써 온 세상이 이를 보고 주를 찾게 해 주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인자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 오셨도다.

### 숲 정 이 산책



「퀴즈」  
목주의 기도를 많이 한 손은



# 인간화

문 정 현 신부

인간화, 뭐 좋은 역양, 인상을 풍기는 단어다. 그러던 서도 무엇인지 깨운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아마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데 이의(異意)가 없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화,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간이 아직도 인간이 못되고 있다는, 즉 비인간적 행위를 하는 인간 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인간들이 있다는 확신의 뜻을 힘 있게 행하는 단어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를 떠보시키는 비인간적이거나 인간이하의 흉악망측들을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소위 "인력당 사형수" 김용원씨 부인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교회나 성당에서 가지는 기도회에 참석치 않을 것, 또 거기에서 남편을 위한 호소를 하지 않을 것 등의 각서를 강요받고 불응에 불응을 몇 날을 두고 거듭, 끝내는 갈증에 못이겨 물 한 잔을 마신것이 성적 흥분이 일어나 뿔뿔했던 몸이 꼬이고 꼬여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수치스럽고, 지질대로 지쳤고 눈앞에 열려버리는 어쁜 자식들이 젖달라고 밥달라고 부르짖는 울음소리가 귓속을 울려 울적한 마음에 그만 각서를 던져 놓고 석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베드로와 함께 남편을 배반한 그 아내는 죄나라는 스스로의 자책으로 눈물조차 말대로 말라 버렸고 마친내는 자살까지 기도하였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복역중 2, 15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던 연세대학교 학생 최민하군,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냈을 것으로 믿지만, 조선 팔도 관광여행을 오산 경찰서 정보원의 미인제(美人計)에 알면서도 속은듯이 응하였다. 호남일대를 관광하다 우리 고장 전주에 이르렀다 쓸쓸한 저녁이 되었다. 후한 대접을 받아 맥주를 마시고는 정해준 여관에 잠자리를 찾아가니 반 나체의 두 여인이 반기더라는 것. 불쌍하고 가엾은 여인들에게 우러나는 동정심에 못이겨 없는 주머니를 털어 여인들에게 나눠줘 내보냈었다. 그때다 추방당했던 시노드 부주교님은 석방된 학생들을 만나보려 온 국제 사면 위원회 로벨 번 호사와 B. B. C 여기자와 함께 장안을 다 누벼도 만날길이 없었다. 만날수 있었을리 없었다. 그 동안에 최군은 서울 멀리 전주에서 술과색의 유희과 싸우고 있었으니까!

시인 김지하씨의 양심 선언에도 마찬가지다. 가톨릭에 침투한 공산주의자임을 강요받았고 본래 빈털과 불면으로 쇠약해진 몸이 5~6일 동안을 시달리다 지쳐 공산주의자로 「만들어 내라」는 상전의 명령을 수행하는 수사관이 미리 써 온 것을 부르는 대로 낙서처럼 받아 써 던져준 것이 소위 「자필 진술서」란다. 그것도 후에 파기해버린 것을 만방에 공표한 것이라니 어이가 없다.

은 누리가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태오 6:9-10)

# 주일학교 시청각 교재 모집 안내

그간 무던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동안 이마에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정말 뛰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나. 오늘도 지난 여름날과 같이 이슬처럼 반짝이는 눈망울 속에서 나의 잃어버린 옛 모습을 찾으며 천진하기만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심으며 고사리손을 잡고 각처에서 수고하고 제실 선생님들께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같이 하길 기원하면서 이번 교구 연합회에서 벌리고 있는 시청각 교재 모집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처럼 사회가 복잡해져 가고 인간이 가치가 자꾸만 상실되어가고 있는 때에 종교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사명 또한 무겁기만 합니다. 말로만 교리를 가르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듣게 하고 보게 하려면 교리를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물론 그러나 이 시청각 교재는 대단히 부족하고 또 있다는 치드라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선생님들의 의욕과 창작력을 불러 넣고 시청각 자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본당이나 공소의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 참여하여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치있게 만든 작품들을 보내주십시오. 선생님들께서 만든 이 작품들은 많은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들의 정성어린 작품을 기다리면서 아래와 같이 모집코저 합니다.

1. 목적: 교사 창작활동을 위해
  2. 모집대상: 교구내 주일학교 교사
  3. 기간: 10. 1~10.31까지 1차모집(지구 연합회에제출) 11. 1~11.30까지 2차모집(교구 연합회에제출)
  4. 내용: 성경내에 한한 교재로 모방작이 아닌 교사 창작품 (교안 첨부 바람 40분 강의)
    - 예: 그림, 용판그림, 공작품, 지도, 인형극 등 새롭고 이색적인 것이면 더욱 좋음
  5. 시상: 7차 연수회때 (1월) 주교님 집전으로 총 작품중에서 특상 1명 우수상 3명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 그 외 1,2,3등은 지구별로 시상함(참가 선생님 전원에게 약간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음)
  6. 발표: 연수회동안 교사들에게 전시 및 발표할 기회를 주며 당선작품은 지구순회 회합때 전시함
- ※ 각본당에서 1점씩 출품해야 하며 개인작품 또는 공동작품도 무방함(단 출품된작품은 되돌려주지 않음)  
<전주 교구 교리교사 연합회>

\*개점 1주년 할인판매\*

남성 T.V 대리점

## 삼성전주센타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절

박영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⑤ 5893

\*서울을 일류기술자 초빙 개업\*

## A 원 양 복 점

교우 여러분에게는 인하 불사

정읍 군청에서 성림극장 쪽으로

전화 998

황재평(베드루)

고급 선물용, 케익, 빵, 파자, 찰싹떡  
◎교우들에게 특별 할인◎

## 미미제과소

상업은행 옆 (⑥6589)

## 미미예식장

남문 옆 (③3915)

김민주(가타리나)

# 악과 선

김 재 욱 (라파엘)

중죄를 지은 자의 심연에도 선이 있다.

악덕을 주워  
구슬로 피베려던 수인이  
사형대 앞에선  
참선의 눈물을 흘린다.

선과 악의 분계선을 알기에  
혈손이 악을 음미 하기 전에  
죄를 다스린다.

성선과 성악이  
긍정과 부정으로 대결하는  
교차점의 십자로에 서서  
하느님은 은혜로운  
성혈을 심어 주었다.

주를 배반한  
유다스 의 비겁한 녀이 아니라도  
출산 때의 순결하고 거룩한 울음을  
그는 울었다.

악덕자의 등에서  
갈수를 주사 받은  
세류의 독침이

성혈을 침식하고  
폭파해 가도

악성을 분산하는  
지류 속에

꽃지 말아야 할  
한 그루의 상록수가  
밤의 이슬을 기다린다.

1975. 9 <전주 해성 중학교 교사>

## 요심이 (117) 김병오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역 중앙 시장동  
(전화 ㉠ 4577)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 세느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뉴 명보제과 앞  
전화 ㉠ 6219

□개업인사□

여러분의 전자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는 종합전자의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보살핌을 부탁드립니다.

김종환(원선시오)아킵

- 취급품...T.V, 냉장고, 전기밥솥, 밥통, 전기장판 등
- 위치...팔달로변 이외과 남쪽 10m (㉠3332)

※신자들의 건강 센터※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 대지사진관(2층)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역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 6544

※교우들의 집단장은!※

### 동양페인트

\*현재 가격에서 10% 할인판매\*  
(단 교우에 한함)

전주 뇌병원 옆  
전화 ㉠ 2765·5986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사진관

장남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 6094

###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 75. 10. 20일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신·구교 합동인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가 있으니 많은 젊은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2. 전주 교구 중, 고등학생 지구대항 친선 체육대회 : 75. 10. 19 오전 9시 각 분당 신부님 많은 분들의 후원과 학생들의 많은(전주 해성학교에서)참석을 바랍니다.
3. 전주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창립총회 : 75. 10. 19 오전 11시, 가톨릭 센터에서 각 지구장 신부님, 사도회장 각 액손단체 (교리교사, 중·고 연합회, 대학생 연합회, L.M, 구 르실로, 의료협동조합, M.B.W, 진용조합 운동 교구위원회, J.O.C)의 대표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4. 28차 국제 신용협동조합의 날 기념 행사 개최 : (1부 기념식, 2부 강연회, 3부 조합원 노래잔치) 일시 : 1975년 10월 26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전주 시민문화관  
※ 거도적인 행사에 조합원은 모두 참석하여 이 경축행사를 더욱 빛나게 합시다.
5. 전주교구 제4지구 4차 주일학교 성가 경연대회 개최 : 75. 10. 26 오후 2시 전동 천주교회에서
6. 신학생 서품식 거행 = 1975년 10월 30일 11시 광주 대진 신학 대학에서

(중앙)

전화 ㉠2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3874 보좌 신부 김 동 준  
 사도 회장 이 상 용

<27> 덕진 4,7반 이 성원택, <28> 덕진5반 조준석택  
 <29> 덕진 6반, 이 성환택

1. 성모회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축 분당 신부님 사제 서품 25주년 기념(은경축) 10월 30일 물심 양면으로 축복 드립니다.  
 ☆금주의 마당 포장 회사금  
 오 재희 : 10,000, 김 동석 : 5,000, 김 진주 : 2,000  
 이 율태, 김 철, 정 만덕, 박 혜순, 정 마리아 : 4,1,000, 박 성녀 : 500, 이 마리아 : 300, 송승례 : 200

6. 미화작업 신자 협조 요망

(복자)

전화 ㉠ 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오늘은 전교 주일 특별헌금을 정성껏 봉헌 합니다.
2. 꼬미씨움 회합 : 오늘 오후 1시반 (전동에서) -축 결혼- 1975년 10월 24일 오후 1시 신랑 김덕수군 신부이명순 (테레사양)  
 지난 주일 미사에 나오신 분  
 남자 : 97명, 여자 : 277명, 제 374명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형

1. 애령회 간부 월례회 : 공식 미사후
2. 성 안또니오 재속 형제회 월례회 : 다음 주일
3. 새 성당 의자 장식금 회사 하신분 감사드립니다.  
 주계 : 15,000 누계 : 439,830
4. 성당 신축 기금 회사 하신분 감사드립니다.  
 누계 : 4,160,627  
 ◎ 신축 성미 <누계> 230.5되

(서학동)

전화 ㉠ 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박 장 준

1. 전례 위원회 : 오늘 밤 미사후
2. 선교 위원회 : 다음 주
3. 견진 성사 일정 : 11월 9일 예정  
 견진 받으실 분은 소정의 양식을 따라 다음주까지 신청 바람

(덕진)

전화 ㉠ 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1. 신년도 봉헌금 수입 실시
2. 봉헌금 완납 협조 요망
3. 레지오마리에 단원 모집
4. 주일학교 어린이 성가 연습
5. 반 미사 일정  
 <23>일 덕진2반, 엄 보임 백, <24> 덕진3반 박 은혜택

(전동)

전화 ㉠ 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양 훈 모  
 사도 회장 양 훈 모

1. 꼬미씨움 월례회 : 오후 1시 30분
2. 성지 순례단 등록 요망 : 11월 2일 나바우 성당  
 전주 출발 : 아침 8시 도착 : 오후 6시
3. 복지회(가정) 창립 총회 : 오늘 10시 미사후 사제관
4. 어린이 미사 시간 : 주일 오후 2시. 아동 많이 참석 바람.

###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 부 수 신 태 정	주일학교 소풍 및 미술 실기 대회	3,745 원	제 3 지구	주 현 동 창 인 동 등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모임	48,220 원
		주일학교 소풍	18,945 원			사도회 임시 총회	41,050 원
제 2 지구	대 들 율 중 합	본당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 합시다	3,175 원	제 4 지구	중 앙 노 송 동 덕 진 자 서 학 동 전	성모회 월례회	54,941 원
		불우 이웃 돕기에 앞장 섭시다	3,175 원			애령회 간부 월례회	19,486 원
		견진 교리 실시	14,750 원			레지오 마리에 단원 모집	15,130 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신자 전체 성가 연습	4,705 원	제 5 지구	무 장 전 남 순 익	꼬미 씨움 회합	18,535 원
		전례 위원회	39,114 원			전례 위원회	17,940 원
		성모회	23,065 원			꼬미 씨움 월례회	50,933 원
		주일 학교 추계 소풍	11,130 원			각 위원회 사업 계획서 제출 요망	12,725 원
						신년도 교무금 카드 찾아 가지길	3,220 원
						유아 세례	4,660 원